캐나다에 중국 양식 관음전 들어섰다

캐나다불교협회, 불교정원 조성

2006년, 스님 3명 설립 발기
2019년 대웅전 이어 성지화
4대 성지 건립 원력 첫 결실로
고대 중국 '두공' 기술로 건축
중국 문화 홍보…유대 강화도

김민재 객원기자


캐나다 우타이산 불교 정원의 대웅전과 관음전(좌측 아래). 사진출처=데일리 차이나

캐나다에 중국 당조시대(唐朝時代)의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른 중국 사찰이 완공돼 화제다.

지난 10월 20일 중국의 영자 일간지 '차이나 데일리'는 캐나다에 당조시대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른 우타이산 불교 정원의 관음전 완공 소식을 전했다.

캐나다 피터버러 카운티의 카반 모나한에 당조시대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른 우타이산 불교 정원의 관음전이 완공됐다.

캐나다 불교협회 잠산사(湛山寺)의 원력과 캐나다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2011년 첫 삽을 뜬 '캐나다 우타이산 불교 정원'은 명상센터와 재활센터를 갖춘 세계적인 불교 복합단지이다. 먼저 완공된 대웅전은 중국의 3대 불교 영산이자 세계 5대 불교성지인 산시성의 우타이산 대웅전을 그대로 본떠 건립했으며 2019년에 봉행한 대웅전 상량식에 2만 7천여 명의 불자가 참석했다. 우타이산(五臺山)은 〈화엄경〉에서 "중국 화북 지방에 있는 청량산(오대산)에서 문수보살과 1만여 명의 보살이 함께 살면서 설법을 한다"고 나온다.

잠산사 다이 시 스님은 "우타이산 불교 정원은 중국의 고대 건축기술과 전통 디자인의 절정을 담았다. 고대 중국 기술인 '두공'으로 지어진 당조시대 목조 건축물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두공은 공포라고도 불리며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를 짜 맞추는 기둥 공법이다.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국과 캐나다 두 나라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의 모든 분파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님은 "우타이산 불교 정원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찾을 수 있는 장소다. 불교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불교 정원에 방문한 모든 이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중국불교협회는 "캐나다 우타이산 불교 정원은 또한 지역 관광의 부흥과 경제 발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음전 상량식에 참석한 빅터 오 상원의원은 "평화와 화합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며 우리 사회에 가치를 확산시키는 주요 주제"라면서 "잠산사의 헌신은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왔으며 캐나다의 종교 신앙의 자유정신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관음전 건립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물자와 건축자재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이 증가했으며 중국 건축 기술자가 입국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기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담당자들은 관음전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북미에서 가장 짧은 공기, 5개월 반을 기록했다.

다이 시 스님은 "경영진과 건설팀의 용감한 노력과 불자들의 원력 덕분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추가로 건립할 예정인 화엄전(비로전)과 일주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협회 잠산사의 설립 발기에 참여한 3인의 스님은 캐나다에 4대 성지 건립 원력을 세웠다. 2004년 잠산사 주지로 임명된 다이 시 스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역경과 도전 끝에 2005년 정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 다음 해인 2006년에 우타이산 불교 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美, 혼간지 사원 창건 125주년 기념 법회

어린이 불자, 천신 행렬 재현 및 타임캡슐 매설


천신 행렬에 참석한 어린이 불자들과 혼간지 사원 스님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미국에 있는 일본계 혼간지 사원이 창건 125주년을 맞아 특별 법회를 봉행해 화제다.

지난 10월 18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미주 일본계 혼간지 사원의 창건 125주년 특별 법회 봉행 소식을 전했다.

미국 하와이 코나에 위치한 일본계 사찰 혼간지 사원 창건 125주년 특별 법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대형 법회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일본 전통 명절인 오봉(お盆)축제와 함께 봉행했다. 일본 본토에서 오봉축제는 7~8월 중에 열리며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 우란분절에서 기원한 축제이다.

코나 혼간지 포교단의 에릭 마츠모토 대표는 "우리는 일본 이민자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 125년의 역사를 기념했다"면서 "코나 혼간지 사원은 조화와 평화 그리고 감사 속에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관불과 염불을 통한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불자들이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천신 행렬을 재현했다. 행렬이 끝나자 특별 법회의 예불을 봉행했다. 혼간지 사원의 린다 나가이 이사는 "코나 혼간지 사원은 125년의 역사를 지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125년의 미래를 그린다. 블레인 히가 스님을 필두로 하는 헌신적인 승가가 다음 세대를 이끌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축사를 전했다.

점심 공양 이후 수계를 원하는 불자에 한해 수계식이 있었다. 특별 법회의 마지막은 50년 후에 개봉할 타임캡슐에 불자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매설했다. 해가 저물자 형형색색의 연등을 점등하며 봉오도리(백중맞이 춤)의 시작을 알렸다. 일본 전통 복장을 입은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태고(일본의 전통 북) 연주에 맞춰 춤을 추었다.

특별 법회를 마치고 코나 혼간지 사원의 페이스북에는 "125주년을 축하하는 멋진 주말을 보냈다! 모두를 위한 즐겁고 유의미한 행사였다. 우리와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법회 소감을 공유했다.

미 하와이 코나에 위치한 일본계 사찰 혼간지 사원은 1897년 코나 혼간지 포교단이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 자국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현재 혼간지 사원은 일본인과 일본계 미국인 후손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혼간지 사원과 제휴를 맺은 여러 단체들이 사원을 이용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포도·와인 불단 올리는 日사찰 '화제'

대선사, 포도 농사…와인 제조
주민에 약용 와인 비법 전수도


불단에 포도와 와인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 대선사. 사진 출처=대선사 홈페이지

포도를 직접 재배해 와인을 만드는 일본의 한 사찰이 화제다.

AFP 등 외신은 지난 10월 19일 이른바 '포도의 절'이라 불리는 대선사(大禅寺)를 소개했다.

대선사는 일본의 최고 와인 생산지인 도쿄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야마나시에 위치한다. 주지 테슈 이노우(Tesshu Inoue · 75) 스님은 포도원 협동조합의 명예회장이다.

테슈 이노우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절에서는 신도들에게 일본 전통주인 사케를 주는데 우리는 와인을 준다"며 "일본 불교에서 매우 독특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사가 '포도의 절'이 된 것은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년)였던 서기 7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의 유명한 승려이자 여행가였던 교키(Gyoki) 스님은 오늘날 사원이 있는 자리에서 오른손에 포도를 든 약사여래를 만난 꿈을 꿨다. 이에 교키는 대선사를 불사하고 약사여래상을 목각으로 만들어 안치했다. 이후 포도원을 열고 인근 주민들에게 약용 와인을 제조하는 법을 전수했다.

일각에서는 교키 스님이 만든 약용 와인이 일본 와인의 대표 품종인 '고슈'(甲州)의 기원이라는 설도 있다.

대선사는 항상 불단에 포도와 와인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직접 재배한 포도와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을 사부대중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AFP는 "주지 스님이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일은 역사를 잇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좋은 업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슈는 1300년 전 일본에 들어와 토착화된 일본 고유의 포도 품종이다. 2010년 6월 일본의 와인양조용 포도로서 국제와인기구(OIV)에 정식 등록됐다. 현재 일본 내 와인양조용 포도 중 고슈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다.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네시아 청년들, 카티나 기념 마음챙김

10월 12~16일, 자바 동부서 축제 개최


인도네시아청년불교협회가 카티나를 기념하며 마음챙김 축제를 개최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남방불교의 최대 행사인 '카티나'(Kathina)를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청년불교협회(YBA)가 마음챙김 축제를 개최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의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YBA는 지난 10월 12~16일 자바 동부에서 '마음챙김축제 2022'를 열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마음챙김의 개념을 비롯해 카티나의 의미와 가르침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다.

빌리 루키토 조스완튼(Billy Lukito Joeswanton) YBA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일상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생활화하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며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선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마음챙김명상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에 모두 유익하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YBA 소속 청년들은 이번 행사에서 현대기술을 결합한 불교 전통 의식과 음악 공연, 서예, 사자춤, 어린이부 공연 등을 선보였다.

수프리야디(Supriyadi)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불교공동체 지도국장도 "자바 동부의 젊은 불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남방불교 최대 축제를 맞아 청년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정말 놀랍고 칭찬할 만한 일이다. 전통을 계승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수프리야디 지도국장은 "이런 활동 덕분에 인도네시아 불자들은 전통을 더 이해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티나는 남방불교 전통 의식으로 음력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안거가 끝나면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